

“마음은 벌써 한가위” 이웃 간 情 ‘넘실’

추석 명절 앞두고 광주 곳곳서 위문행사 이어져 동구장애인복지관 ‘추추여행’ 350여명 ‘웃음꽃’

“친구들과 옛 생각 나는 놀이도 하고, 좋은 공연 보면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 벌써 명절 같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광주 곳곳서 소외이웃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려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 명절 행복나눔 한마당 ‘추추여행 (추억의 추석)’이 개최됐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이 문을 연 지난 2014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줄곧 개최돼 온 행사가 올해는 지역 주민 350여명이 참석했다.

별빛소리합창단의 식전공연 후 동구장애인복지관 마당에선 ▲웃놀이 ▲비석치기 ▲투호던지기 ▲딱지치기 ▲팽이돌리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와 삼색전 만들기, 추억의 색칠하기, 야구공의 행운 찾기 등 10개의 체험부스가 문을 열었다.

각 체험부스에서 전통놀이 등을 즐기는 어르신들은 동심(童心)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 했다.

전통놀이가 조금은 낯선 10대들의 열기도 뜨거웠는데, 투호 던지기 부스에서 3개의 화살을 모두 넣은 한 청소년은 주변 친구들을 향해 “내가 1등이다!”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가족 단위 참석자

들은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함께한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갔다.

오후 11시10분부터 (사)빛남영화공동체의 재능 기부로 열린 ‘행복나눔 공연’도 인기 만점이었다.

무대에 오른 황철호·오명자 가수는 각자 준비해 온 곡 이외에도 참석자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며 흥을 한껏 돋웠다.

공연과 함께 행복나눔밥상이 시작되자 동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은 식판에 밥과 소고기국, 김치, 잡채, 돼지갈비, 송편, 메론 등을 담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산수동 주민 김모(78)씨는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놀이도 하고, 멋진 공연에 좋은 음식까지 대접받아 기분이 좋다”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벌써 명절 같다”고 웃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선 동구장애인복지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손수 빛은 송편을 돌봄이웃 34세대와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전달했으며, 금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송편과 계란 등의 위문 물품을 저소득이웃 55세대에 지원했다.

남구새마을회도 ‘이웃과 함께하는 송편만들기 및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시설·단체에 정을 나눴다. /안재영 기자



지난 11일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추석 명절 행복나눔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투호던지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 /안재영 기자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서 희비 엇갈려

市상대 ‘시공 지위’ 패소·우빈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은 승소 대법 판결 사업 항방 ‘키’...케이앤지스틸 ‘주주권’은 변론 재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과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 중인 한양이 항소심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한양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시공권 확보가 더욱 멀어졌으나, 상고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이하게 됐다.

반면, 우빈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선 연이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한양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우빈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고(우빈산업)는 원고(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을 지급하고 빛고를 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설립 당시 빛고를 SPC의 출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 파크엠 2%였으나, ‘사업

의 주도권’에서 비롯된 내홍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분이 이동했다.

항소심 승소로 기존 30% 지분을 소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도 이기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또 이날 선고 예정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된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인수참가 롯데건설) 간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심서 원고가 승소하면 ‘한양파’는 최대 70%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돼 사업의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빈산업의 주식은 근질권을 행사한 롯데건설에게 넘어간 뒤라 한양이 실제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안재영 기자

‘낙뢰 맞고 심정지 40분’ 20대 교사 ‘기적적 회복’

서석고 김관행씨 28일만에 퇴원... 전남대병원엔 1천만원 기탁

광주에서 낙뢰를 맞고 심정지가 왔던 20대 교사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2일 “최근 조선대 캠퍼스에서 낙뢰를 맞고 쓰러진 김관행(29)씨가 16일간의 중환자실 치료 등을 거쳐 사고 28일만에 이날 2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씨는 교사 3년차로, 지난달 5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교사 연수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교정을 걸어가다 낙뢰에 맞아 심장이 멈춘 채 쓰러졌다.

인근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김씨는 겨우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심장이 40분간이나 멈춰있던 탓에 여러 장기가 훼손된 상태였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학과 교수는 “심장과 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지만 환자도 젊고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전력을 쏟아 치료했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ECMO(인공심폐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조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ECMO 치료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사흘 정도가 지나면서

김씨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고, 입원 10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돌아왔다. 김씨는 건강하게 퇴원했지만,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심실장애·근력 감소·발뒤꿈치 피부 손상 등으로 아직 걸기 힘든 상태이다.

김씨는 “직장 복귀를 언제 할 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살았다는 기쁜 마음을 품고 두 번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의료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기수희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4 해짐 18:42
달돋이 15:39 달짐 00:04

광주	흐려져비	24/34
목포	구름조금	25/32
여수	구름조금	26/31
나주	흐려져비	24/34
완도	맑음	25/34
구례	흐려져비	24/34
강진	흐려져비	24/33
해남	흐려져비	24/34
장성	흐려져비	23/34
보성	흐려져비	23/32
순천	흐려져비	25/33
영광	구름조금	24/33
진도	구름조금	25/33
흑산도	구름조금	24/33
고흥	구름조금	24/33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40 빨래 40 세차 50 운동 50
우산 챙기세요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우비 필요해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0.5
	면바다(북)	0.5-1.5
	면바다(남)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면바다(동)	0.5-1.5
	면바다(서)	0.5-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8:37	03:07
	22:02	14:16
여수	04:08	10:05
	18:10	--:--
녹동	04:44	00:13
	18:59	11:15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9월 14일(토)	☁(24/34)	☁(26/30)	☁(24/29)	☁(25/34)	☁(26/32)
15일(일)	☁(25/34)	☁(25/32)	☁(23/28)	☁(25/32)	☁(27/32)
16일(월)	☁(25/32)	☀(25/32)	☁(22/28)	☁(22/30)	☁(27/32)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추석 보름달, 구름 사이로 볼 수 있다”

17일 오후 6시15분께 뜰 듯

광주·전남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 기온은 평년보다 5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귀성이 시작되는 13일에는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기간 소나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전날인 16일에는 중국으로 이동하는 태

풍에 의해 수증기가 유입, 흐리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17일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천문연구원의 해달 출몰 시각 자료를 보면 추석 당일 보름달은 광주 기준 오후 6시15분에 뜨고 18일 오전 4시50분에 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남중 시각은 18일 자정이 될 전망이다.

귀경길인 18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해해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동아리 모임 후 의식불명 여대생 뇌사 판정

동아리 모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여대생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32분께 동구 조선대학교 한 단과대학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20·여)씨가 이날 오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8일 간의 병원 치료 동안 A씨는 호흡

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되찾지 못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 전 A씨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뒤풀이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범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 따라 사건을 범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